

칼 가지고 장난치지말자

김 해 인

4월8일 어느 날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. 나는 숙제를 하는 게 너무너무 지루해서 커터 칼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. 그렇게1시간 뒤 나는 손가락이 베었다 피가철철 나고 엄청 아팠다. 나는 바로엄마한테 달려가 손가락이 베었다고 말했다. 엄마는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가야할 것 같다고 했다. 아빠는 바로 나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.

응급실에서 손가락을 꿰매야 할 것 같다고 했다. 나는 긴장을 했다. 5분 뒤 손가락을 꿰매는데 엄청 아팠다 나는 울었다.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마취가 풀려서 손가락이 다시 아팠다. 아빠가 다시는 칼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하셨다. 다신 그러지 않아야지

